

# 저소득층의 점유형태별 생활비 지출특성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The Impact of Living Expenses of Low-Income Households on  
Mental Health by Housing Tenure Type

강수진 (Su-Jin Kang)\* · 서원석 (Wonseok Seo)\*\*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impact of living expenses of low-income households on mental health by housing tenure type and also to suggest the implications of housing supports and policies for low-income households based on a binomial logit model.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the depression of low-income renters was higher than that of low-income homeowners. Second, it was confirmed that the economic problems of the low-income households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deterioration of mental health, such as depression. Third, the effect of living expenses on mental health differed by housing tenure type. In particular, fixed expenditure has been shown to have a greater impact on the mental health of renters. Fourth, housing costs were the most important factor affecting the depression of low-income households, and its impact on renters was found to be greater. These results confirmed that low-income households could suffer from depression due to mainly the fixed living expenses that are almost impossible to reduce depending on economic conditions. In particular, it was found that in the case of renters, the greater the burden of living expenses including housing and living costs, the greater the depression.

키워드 : 정신건강, 우울감, 점유형태, 저소득층, 생활비, 지출

Keyword : Mental Health, Depression, Housing Tenure, Low-income, Living Expenses, Expenditure

\*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박사수료, sujin4644@naver.com, 주저자

\*\*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부교수, wseo@cau.ac.kr, 교신저자

## I. 서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한 2019 한국복지패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일반가구의 우울감은 평균 3.77점인데 반해 저소득 가구는 9.97점으로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한 번이라도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는 비율 또한 저소득 가구가 4배 이상 높게 나타나는 등 저소득층의 열악한 정신건강 수준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정신건강 문제를 일으키는 결정적인 요인은 빈곤과 같은 경제적 상황의 악화라고 할 수 있다(Taylor et al., 2005; 이상문, 2008; 우혜경·조영태, 2013). 경찰청에서 조사한 자료 역시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는데, 경제·생활문제로 인한 자살자는 2014년 2,889명에서 2018년 3,390명으로 약 17.3%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에 있다. 유사 기간 극단적 선택을 한 전체 사례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sup>1)</sup> 경제·생활문제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가 늘어난다는 것은 생활고로 인한 자살이 위험한 사회현상으로 발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주변에서 생활고로 인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소식<sup>2)3)4)</sup>도 끊임없이 뉴스매체를 통해 전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회문제를 가중시키는 경제·생활문제의 핵심은 생활에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저소득층에게 있어 생활비 가중은 안정적인 삶에 있어 어려움의 원인이 되고 있다(김영주·유병선, 2010). 일반적으로 생활비는 식료품이나 의류 등 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계비, 주거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일체의 비용인 주거비, 보건의료비, 세금 및 사회보장부담금 등과 같이 기초생활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비용인 고정지출(기초생활비영역)과 교육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등 필요에 따라 조절할 수 있는 유동지출(비기초생활비영역)로 구분된다(정영일 외, 2013). 유동지출의 경우 경제적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으나, 고정지출의 경우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일정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경제력이 높을수록 전체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하게 된다(김영숙·심미영, 1994).

1) 중앙자살예방센터(<http://spckorea-stat.or.kr/>)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인구 10만명 당 자살률은 2013년 28.5, 2014년 27.3, 2015년 26.5, 2016년 25.6, 2017년 24.3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2) 2019.11.12., 한겨레, “성북 네 모녀’ 빚 압박에 생활고…채무조정·복지 연계 안전망 절실”

3) 2019.12.16., 파이낸셜뉴스, “생활고에 잇따른 비극..”가난 증명 없어져야”

4) 2019.12.22., 연합뉴스, “복지 사각지대 비극…생활고 겪은 일용직 고독사”

이러한 점에서 경제력이 취약한 저소득층은 높은 고정지출에 대해 부담을 느끼게 되는데, 특히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저소득층 차가가구의 경우 주거관리비, 광열수도비 외에 월세, 보증금에 대한 부채이자 등 주거비에 대해 더 큰 부담을 가지게 된다(이현정 외, 2018).

최근 경기침체와 더불어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이 이루어지면서 전월세 상승기조 또한 뚜렷해지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담보가능한 실물자산이 없는 차가가구는 자가가구에 비해 높은 주택 관련 금융비용을 떠안게 되면서 고정지출에 대한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박경준·이성우, 2015; 이현정 외, 2018). 특히 주거와 관련된 비용 증가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는 정신건강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강수진·서원석, 2019). 이와 같은 문제는 저소득계층에게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주거와 관련된 지출은 민간의 도움으로 쉽게 해결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민간을 통해 지원이 가능한 저소득층의 지원은 자원봉사, 일부 생필품 지원 등에 그치고 있으며, 고정지출의 핵심인 주거비는 민간이 아닌 공공지원의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재원, 인력 등의 한계로 인해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지원은 극빈층을 중심으로 한 선택적 지원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앞서 제시한 사례에서와 같이 저소득층이지만 자가를 소유하고 있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수준으로 인해 공공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의 생활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등 이들의 소외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주거비 문제가 이들의 우울감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우울의 확대가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에서 저소득층의 점유형태에 따른 우울의 양상을 생활비 지출특성 측면에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저소득층 주거지원 및 정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일부 연구에서 저소득층의 우울과 주거비 부담의 관계를 다룬바 있으나(박정민 외, 2015; 강수진·서원석, 2019), 저소득층의 점유형태에 따라 생활비 지출특성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실증분석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소비지출은 사회정책의 평가와 기획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지출을 파악하는 연구는 불평 등의 원인을 이해하고 저소득층에 부담을 주는 소비 영역을 파악하여 사회정책을 기획·개선하는데 기초가 될 수 있다(이현주 외, 2016).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저소득층의 점유형태에 따른 생활비 지출특성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이항로짓모형(Binary Logit Model)을 이용해 파악하고,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저소득층 주거지원 및 주택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고찰토록 한다.

## II. 선행연구 고찰

소득수준이나 사회경제적 지위와 같은 경제적 상태는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에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에게 나타나는 지속적인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는 우울에 있어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박상규·이병하, 2004; 강상경·권태연, 2008; 엄태완, 2008; 성준모, 2013). 그러나 소득이 높더라도 지출이 더 많다면 경제적 압박이 높을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에는 복지수준을 측정하는 데 있어 지출이 더 유용한 지표로 이용되고 있다(Meyer & Sullivan, 2011; Lusardi, 2012; Rogerson, 2013; 이현주 외, 2016; 박서영·홍송이, 2017).

이에 따라 다수의 연구는 소득보다는 총생활비나 주거비에 초점을 맞추어 우울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성준모(2013), 박정민 외(2015), 강수진·서원석(2019)은 총생활비 및 주거비가 많이 들어 부담이 될 때 우울이 증가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장신재(2017)는 노년층의 생활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생활비가 적은 노인일수록 우울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녀로부터의 지원은 우울을 감소시킨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성준모(2010)는 생활비 지출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우울과의 관계를 확인하였는데, 사교육비와 보육비, 생활비 변화가 우울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다.

박서영·홍송이(2017)와 박서영·홍송이(2018)는 베이비부머의 소비패턴을 파악하고 소비패턴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은퇴 베이비부머 소비를 기초생활중심, 균형소비생활, 사회생활중심, 여가생활중심, 교육비중심과 같은 다섯 개의 지출유형으로 구분한 후 우울과의 관계를 파악한 결과 전반적으로 교육비중심 유형보다 기초생활중심 유형의 우울 수준이 유의하게 낮았음을 밝혔다. 경제활동 중인 베이비부머는 기초생활중심, 사회생활중심, 주거생활중심, 고급소비중심으로 지출 패턴이 파악되었는데, 사회생활중심 유형과 비교해 기초생활중심과 고급소비중심의 우울 수준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관련 연구 또한 사회경제적 상태와 우울의 관계에 대해서 파악한 바 있는데, 낮은 경제적 상태는 우울증 및 자살 시도 등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며(Taylor et al., 2005; Turner et al., 1995), 낮은 경제적 상태의 지속은 우울과 같은 정신장애 기간이 길어지게 만들고 있음을 밝혔다(Eaton et al., 2001).

이상의 선행연구를 통해 생활비와 같은 경제적 요인은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 악화의 발

생과 지속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으며, 생활비 지출 항목에 따라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이 다름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기존 선행연구는 대체로 총생활비 또는 일부 유형의 생활비를 대상으로 하였거나, 직접지출이 아닌 주거비부담 비율과 같은 간접자료를 이용해 개인의 우울감을 파악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다른 가구보다 경제적 부담이 큰 저소득층의 지출특성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연구는 부족하며, 특히 점유형태에 따른 저소득층의 세부적인 지출특성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저소득층의 지출특성과 정신건강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그들 삶의 실제 모습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도움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의 증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복지정책을 결정하고 지원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 기초토대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실증분석을 통해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저소득층 지원에 대한 정책방향을 정신건강 증진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 III. 분석자료 및 모형

#### 1. 분석자료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전국을 대상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한 가장 최근 자료인 14차 한국복지패널조사(2019년)를 실증분석에 사용하였다. 한국복지패널의 원표본 7,000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 3,500가구와 중위소득 60% 이상인 일반가구 3,500가구로 구성되어 있어, 국내 패널 조사 중 가장 많은 저소득가구를 포함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김태완 외, 2017).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복지패널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적절한 자료라고 판단된다.

실증분석에 사용된 종속변수인 우울감은 심리적 증상 및 행동 평가척도인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of Depression Scales(CES-D)를 기준으로 구성되었는데, “귀하는 지난 1주일간 얼마나 자주 다음과 같이 느끼셨습니까?”라는 질문의 11개 하위 항목<sup>5)</sup>에 대한 응답을 4점 리커트척도(Likert Scale)로 파악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 관련 연

5) 1. 먹고 싶지 않고 식욕이 없다 2. 비교적 잘 지냈다 3. 상당히 우울했다 4. 모든 일들이 힘들게

구6)에서 우울 수준을 파악한 기준을 적용해, 11문항에 대한 응답의 합계에 20/11을 곱한 값이 16점 이상일 때는 우울한 것으로, 16점 미만일 때는 우울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이를 이항 변수(1=우울함, 0=우울하지 않음)로 사용하였다.

독립변수는 개인특성, 경제특성, 지역특성, 지출특성으로 구분하고, 이에 포함되는 총 19개의 변수(참조변수 포함)를 사용하였다. 먼저 개인특성에는 성별, 연령, 최종학력, 가구구성원(가구원 수), 장애여부, 건강상태 등 일반적인 사항을 포함하였다. 다음으로 경제특성에는 경제활동여부와 연금수급여부, 소득, 순자산을 포함하였으며, 지역특성으로는 거주 지역에 대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보고자 하는 지출특성은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지출특성별 비중을 사용하였는데, 한국복지패널은 식료품비, 주거비, 광열수도비, 가구·가사용품비, 의류신발비, 보건의료비, 교육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기타소비지출, 사적이전, 세금, 사회보장부담금(사회보장비)으로 생활비를 세분화하여 조사하고 있으며, 본 연구는 이를 성격에 따라 2개 범주(고정지출, 유동지출), 8개 유형으로 재분류해 변수화하였다. 먼저 고정지출 범주에 포함되는 생활비를 살펴보면, 세금 및 사회보장부담금(사회보장비)은 세금 및 가족구성원의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포함하였다. 생계비는 식료품비와 가사용품비, 의류비를, 보건의료비는 입원비, 외래진료비, 치과진료비, 수술비, 약값, 간병비 등의 금액을 포함하였다. 주거비의 경우 월세, 주거관리비, 광열수도비, 주거관련부채이자 등을 포함한 금액이 포함되었다.

다음으로 유동지출 범주에 포함되는 생활비를 살펴보면, 교육비에는 보육료와 공·사교육비, 자녀에게 보내는 송금금액이 포함되었다. 교양오락비의 경우 신문, 서적, 잡지, 영화 및 공연관람, 교양오락용품 구입비, 교양오락서비스 등과 같은 지출을, 교통통신비는 대중교통비와 자동차 구입 및 유지비, 자동차 보험 등의 교통비와 전화·휴대폰 구입 및 이용요금, 인터넷 이용료 등의 통신비를 각각 포함하였다. 기타지출의 경우 기타소비지출 및 기타

느껴졌다 5. 잠을 설쳤다(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6.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7. 큰 불만 없이 생활했다 8.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9. 마음이 슬펐다 10.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11. 도무지 뭘 해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 6) 전경구·이민규(1992)의 연구에서는 한국판 CES-D 검사 점수가 16점 이상을 우울증을 나타내는 분할점수로 사용할 경우 정신과 주치의의 진단과 일치하는 양상으로 나타남을 밝혔으며, 이후 다수의 연구(조맹제 외, 1999; 조성진 외, 2001; 김준표·김순은, 2018; 강수진·서원석, 2019; 박경순 외, 2020)에서 16점을 기준으로 우울의 유무를 파악하였다.

사적이전 금액이 포함되었는데, 이미용용품 구입 및 서비스, 장신구, 경조비, 교제비용, 친목회비, 종교 관련 등의 비용과 자녀 외의 가구원 또는 비가구원에게 보내는 사적이전 금액이 해당된다.

〈표 1〉 변수 구성 및 설명

변수		단위	변수 설명	
종속변수	우울여부	더미	1=우울함, 0=우울하지 않음	
개인 특성	성별	더미	여자=1, 남자=0	
	연령	세	가구원 연령	
	최종학력	명목	1.무학 2.초등학교 3.중학교 4.고등학교 5.전문대학 6.대학교 7.대학원(석사) 8.대학원(박사)	
	가구구성원	명	가구 구성원 수	
	장애여부	더미	장애 있음 <sup>a)</sup> =1, 장애 없음=0	
	건강상태	5점 척도	1=건강이 아주 안좋다 2=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3=보통이다 4=건강한 편이다 5=아주 건강하다	
경제 특성	경제활동여부	더미	경제활동 참여=1, 경제활동 미참여 <sup>b)</sup> =0	
	연금수급여부	더미	연금 <sup>c)</sup> 수급=1, 연금 수급 미해당 및 미가입=0	
	소득	만원	연간 총 가처분소득 <sup>d)</sup>	
	순자산	만원	총 재산 <sup>e)</sup> 에서 총 부채 <sup>f)</sup> 를 뺀 금액	
지역특성	수도권 여부	더미	수도권=1, 비수도권=0	
지 출 특 성	고 정 지 출	사회보장비	%	생활비 대비 세금 및 사회보장부담금
		생계비	%	생활비 대비 식료품비, 가사용품비, 의류비
		보건의료비	%	생활비 대비 보건의료비
		주거비	%	생활비 대비 월세, 주거관리비, 광열수도비, 주거관련부채이자
	유 동 지 출	교육비	%	생활비 대비 보육료비, 공·사교육비, 자녀송금 금액
		교양오락비	%	생활비 대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	생활비 대비 교통통신비
		기타지출	%	생활비 대비 기타소비지출 및 사적이전

- a)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 발달장애, 간질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비등록장애인 중 해당
- b)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 c)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직우체국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포함
- d) 경상소득에서 사회보장부담금과 세금(소득세)을 제외한 금액
- e) 거주주택, 소유부동산, 점유부동산, 금융자산, 농기계, 농축산물, 자동차, 기타재산 등의 금액 합
- f) 금융기관대출, 일반사채, 카드빚, 전세보증금, 외상 및 미리 탄 계돈, 기타부채 등의 합

## 2. 분석모형

본 연구의 목적인 저소득층의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지출특성별 비중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된 종속변수는 우울감으로, 이변량 변수로 구성되어 있다. 종속변수가 0과 1 두 가지 값만을 갖는 명목척도의 경우 일반적인 선형 회귀모델의 사용이 부적절하다. 그 이유는 종속변수와 독립변수가 선형을 가져야 한다는 가정을 위배하게 되고, 오차들이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으며, 등분산성을 갖지 않기 때문이다(이희연·노승철, 2013).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이항로짓모형을 사용해 모형적합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이항로짓모형은 종속변수( $Y$ )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 $X$ )의 확률( $P$ )을 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확률값은 비선형 형태를 가지며 이를 로지스틱모형으로 나타내면 식 (1)과 같다(최열 외, 2009; 권연화·최열, 2020).

$$E(Y|X) = P(X) = \frac{\exp(\alpha + \beta X)}{1 + \exp(\alpha + \beta X)} \quad (1)$$

이러한 비선형 형태인 확률값을 로짓(Logit) 변환을 통해 선형 형태로 해석할 수 있으며, 로짓변환을 한 이항로짓회귀모델은 식 (2)와 같다(이희연·노승철, 2013).

$$\log_e \left( \frac{P(X)}{1 - P(X)} \right) = \sum_{k=1}^K \alpha + \beta_k X_k \quad (2)$$

로짓모형의 특성 중 하나는 분석 결과를 승산비(Odds Ratio, OR)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승산비에 대한 수식은 식 (3)과 같은데, 독립변수  $X$ 가 한 단위 증가할 때 종속변수가 한 단위 증가할 확률은  $e^\beta$  배 만큼 증가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김병석, 2019).

$$\frac{\pi(X)}{1 - \pi(X)} = \exp(\alpha + \beta X) = e^\alpha (e^\beta)^X \quad (3)$$



## IV. 실증분석 결과

### 1. 기초통계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에 대한 기초통계 결과는 <표 2>와 같다. 먼저 실증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저소득층 집단을 대상으로 선정된 뒤 불안전하거나 미응답 항목을 포함한 자료를 제외한 총 1,660명의 자가 가구원(자가)과 979명의 차가 가구원(차가)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종속변수인 우울여부의 경우 자가는 24%, 차가는 35%가 우울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 차가의 우울감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독립변수를 살펴보면 먼저 개인특성의 경우 자가와 차가 모두 성별은 여성의 비중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자가 평균 0.63, 차가 평균 0.64). 연령의 경우 20대부터 90대까지 분포되어 있고, 자가의 경우 평균 73세, 차가의 경우 평균 66세로 자가와 차가 관계없이 저소득층의 연령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up>8)</sup> 최종학력은 자가와 차가 모두 고등학교 수준을 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자가 평균 3.63, 차가 평균 3.93). 다음으로 가구원이 속해 있는 가구의 구성원 수는 자가와 차가 모두 약 2명 정도로 확인되었다(자가 평균 1.90, 차가 평균 1.75). 장애 유무는 자가는 16%, 차가는 23% 정도로 나타나 차가 가구원의 장애비율이 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강상태에 대해서 자가와 차가 모두 보통 수준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자가 2.72, 차가 2.60).

경제특성과 관련해 먼저 경제활동여부의 경우 자가가 30%, 차가가 15%로 차가 가구원의 경제활동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자가(34%)와 비교해 차가(13%)의 연금수급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소득의 경우 자가는 연간 평균 1,487만원, 차가는 연간 평균 1,403만원으

7) 한국복지패널의 경우 저소득층에 대해 공공부조 전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60% 미만인 집단으로 정의하고 있음.

8) 한국복지패널조사의 2019년 자료에서 원표본 가구 연령은 평균 50.72세, 저소득층의 평균 연령은 66.17세로, 저소득층의 평균 연령이 훨씬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원 표본 가구의 연령은 20세 미만인 경우가 18.3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는 40대(16.47%), 50대(16.41%), 30대(14.42%), 20대(13.46%)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저소득 가구에서는 60대 이상 고령층의 비중이 56.17%로 일반 가구의 14.65%에 비해 약 3.8배나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60대 이상의 고령층의 경우 근로활동이 미약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나며, 이에 따라 저소득층의 평균 연령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로 자가가 더 높았으며, 순자산 역시 자가가 더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가구원은 자가는 약 22%, 차가는 약 40% 수준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지출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자가의 경우 참조변수인 세금 및 사회보장부담금(사회보장비)은 3%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용은 고정지출인 생계비로 생활비의 약 38%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보건의료비는 13%, 주거비는 14% 정도였으며, 교육비와 교양오락비의 경우 모두 각각 3% 수준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교통통신비의 경우 9%, 기타지출의 경우 17%로 나타났다. 차가의 경우 세금 및 사회보장부담금은 2%로 파악되었다. 생계비는 약 42%로 생활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비의 경우 21%로 차가의 생활비 중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외 보건의료비는 8%,

〈표 2〉 기초통계 분석결과

변수		자가(N=1,660)				차가(N=979)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우울여부		0.24	0.43	0.00	1.00	0.35	0.48	0.00	1.00	
개인 특성	성별	0.63	0.48	0.00	1.00	0.64	0.48	0.00	1.00	
	연령	73.45	12.83	21.00	97.00	66.16	17.96	20.00	98.00	
	최종학력	3.63	1.32	2.00	8.00	3.93	1.41	2.00	8.00	
	가구구성원	1.90	0.82	1.00	5.00	1.75	0.92	1.00	6.00	
	장애여부	0.16	0.37	0.00	1.00	0.23	0.42	0.00	1.00	
	건강상태	2.72	0.95	1.00	5.00	2.60	0.99	1.00	5.00	
경제 특성	경제활동여부	0.30	0.46	0.00	1.00	0.15	0.36	0.00	1.00	
	연금수급여부	0.34	0.47	0.00	1.00	0.13	0.34	0.00	1.00	
	소득	1,487	668	0.00	4,039	1,403	702	0.00	4,007	
	순자산	12,898	26,833	0.00	207,060	2,349	7,028	0.00	102,440	
지역특성		수도권여부	0.22	0.41	0.00	1.00	0.40	0.49	0.00	1.00
지출 특성	고정 지출	사회보장비	0.03	0.04	0.00	0.46	0.02	0.02	0.00	0.14
		생계비	0.38	0.12	0.08	0.83	0.42	0.11	0.10	0.80
		보건의료비	0.13	0.12	0.00	0.76	0.08	0.10	0.00	0.66
		주거비	0.14	0.08	0.01	0.79	0.21	0.10	0.02	0.65
	유동 지출	교육비	0.03	0.03	0.00	0.31	0.02	0.06	0.00	0.40
		교양오락비	0.03	0.03	0.00	0.34	0.02	0.03	0.00	0.24
		교통통신비	0.09	0.07	0.00	0.70	0.10	0.06	0.01	0.46
		기타지출	0.17	0.11	0.00	0.76	0.13	0.10	0.00	0.55

교육비와 교양오락비는 각각 2%, 교통통신비는 10%, 기타지출은 13%로 각각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생활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식료품비, 가사용품비, 의류비 등을 포함하는 고정지출 생계비임을 알 수 있었다. 이외에 자가 가구원은 보건의료비와 주거비, 기타지출에 생활비를 많이 지출하였으며, 차가 가구원은 주거비와 기타지출의 비중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 2. 점유형태별 우울감 및 생활비 지출특성 비교

저소득층의 점유형태(자가 및 차가)별 정신건강과 생활비 지출특성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이용하였다. 그 결과 종속변수인 우울감은 유의한 평균 차이를 보였는데, 차가 가구원이 자가 가구원보다 우울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참조).

다음으로 자가와 차가의 총생활비 대비 지출항목별 비중을 비교한 결과 유동지출 범주에 포함되는 교통통신비를 제외한 모든 항목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생계비와 주거비는 차가가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으며, 보건의료비, 교육비, 교양오락비, 기타지출, 사회보장비(세금 및 사회보장부담금)는 자가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표 4〉 참조). 이를 통해 차가는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고정지출(기초생활비영역)의 비중이, 자가는 유동지출(비기초생활비영역)의 비중이 더 높다는 특징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3〉 점유형태별 우울감 비교

변수	집단	평균	표준편차	t
우울여부	자가	0.24	0.43	-5.96 ***
	차가	0.35	0.48	

p<0.01(\*\*\*)

본 연구는 또한 점유형태별 생활비 지출액이 항목별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출금액의 평균 차이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생활비 항목의 지출액이 점유형태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표 5〉 참조), 구체적으로 주거비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 대해 자가의 지출액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차가의 경우 자가보다 주거비용으로 많은 금액을 지출하고 있으며, 이는 타 지출의 감소로 이어진다는 점을 파악하였다. 또한 사회보장비, 생계비, 보건의료비, 주거비의 합산인 고정지출과 교육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기타지출의 합산인 유동지출 그리고 총생활비 모두 유의하게 자가가 많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표 4〉 점유형태에 따른 항목별 생활비 지출비중 비교

변수	집단	평균	표준편차	t	변수	집단	평균	표준편차	t
사회보장비	자가	0.03	0.04	12.71 ***	교육비	자가	0.03	0.03	5.76 ***
	차가	0.02	0.02			차가	0.02	0.06	
생계비	자가	0.38	0.12	-0.53 ***	교양오락비	자가	0.03	0.03	1.949 **
	차가	0.42	0.11			차가	0.02	0.03	
주거비	자가	0.14	0.08	-18.78 ***	교통통신비	자가	0.09	0.07	-0.22
	차가	0.21	0.10			차가	0.10	0.06	
보건의료비	자가	0.13	0.12	10.96 ***	기타지출	자가	0.17	0.11	3.45 **
	차가	0.08	0.10			차가	0.13	0.10	

p<0.05(\*\*), p<0.01(\*\*\*)

〈표 5〉 점유형태에 따른 항목별 생활비 지출액 비교

변수	집단	평균	표준편차	t	변수	집단	평균	표준편차	t
사회보장비	자가	5.74	10.43	9.20 ***	교육비	자가	3.73	12.52	2.60 ***
	차가	2.47	5.00			차가	2.33	13.83	
생계비	자가	53.87	24.58	2.10 ***	교양오락비	자가	3.37	7.88	0.57 **
	차가	51.75	25.76			차가	3.21	4.87	
주거비	자가	17.02	19.06	-8.87 ***	교통통신비	자가	16.46	30.04	2.41 **
	차가	23.08	12.71			차가	14.00	14.06	
보건의료비	자가	19.12	24.4	9.28 ***	기타지출	자가	27.26	37.23	4.04 ***
	차가	10.73	18.69			차가	21.94	22.78	
고정지출	자가	95.74	48.85	4.20 ***	유동지출	자가	50.82	66.17	2.80 ***
	차가	88.03	39.42			차가	41.48	40.70	
총생활비	자가	145.16	101.29	3.89 ***	단위: 만원 p<0.05(**), p<0.01(***)				
	차가	130.91	70.17						

### 3. 지출특성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분석

본 연구는 정신건강(우울감)에 대한 저소득층의 생활비 지출특성 차이를 점유형태별로 비교하기 위해 자가모형과 차가모형으로 구분해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먼저 분석모형에 대한 적합도를 살펴보면, 〈표 6〉과 같이 자가모형과 차가모형 모두 상수만을 포함한 -2 Log Likelihood 적합기준 값이 독립변수를 모두 포함한 최종모형보다 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독립변수가 우울감을 더 명확히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선형회귀모

형에서 모형설명력을 확인할 수 있는  $R^2$ 값과 유사한 성격의 Cox&Snell  $R^2$ , Nagelkerke  $R^2$  값은 자가모형의 경우 최대 23.7%, 차가모형은 최대 25.6%로 나타나 전체적인 모형적합도는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마지막으로 모든 변수의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값이 일반적인 다중공선성 검정기준인 10 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으로 인한 과대추정 문제는 없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6〉 모형적합도

구분	모형적합기준		Pseudo $R^2$	
	모형	-2 Log Likelihood	Cox&Snell	Nagelkerke
자가 모형	상수모형(Intercept only)	1826.35	0.168	0.237
	최종모형(Final)	1579.51		
차가 모형	상수모형(Intercept only)	1266.89	0.186	0.256
	최종모형(Final)	1065.75		

실증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개인특성의 경우 자가와 차가가구 모두 여성일수록 우울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존 연구(Seedat et al., 2009; 윤우석, 2014; 박근덕 외, 2017; 강수진·서원석, 2019)와 동일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가구원이 증가할수록 차가의 우울할 확률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차가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경우 부양할 가구원이 많아질수록 가구경제의 취약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다만 가구원의 연령과 경제활동 여부 등의 추가 확인을 통해 저소득층 가구원수와 우울감의 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장애 및 취약한 건강상태는 경제적 수준과는 관계없이 우울감을 높이는 원인으로 나타났다.

경제특성에 포함되는 경제활동여부, 연금수급여부, 소득은 점유형태와는 관계없이 통계적 유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경제활동을 하고 있을수록, 연금을 수급할수록, 월평균 소득이 높아질수록 우울감이 완화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경제적 문제는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의 악화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Taylor et al., 2005; 이상문, 2008; 성준모, 2010; 우혜경·조영태, 2013). 다만 이러한 우울감은 자가보다 차가에서 더 크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경제활동여부에 대한 자가 역승산비)=1.19, 차가 역승산비=1.52 / 연금수급여부에 대한 자

〈표 7〉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 분석 결과

Parameter		자가모형				차가모형				
		Estimate	O.R.	S.E.	VIF	Estimate	O.R.	S.E.	VIF	
Intercept		5.17	-	3.46	-	11.88	-	8.21	-	
개인특성	성별	0.27**	1.31	0.15	1.30	0.47**	1.59	0.17	1.16	
	연령	-0.01	0.99	0.01	1.95	-0.01	0.99	0.01	2.31	
	최종학력	-0.07	0.94	0.07	1.71	0.04	1.04	0.07	1.87	
	가구원수	-0.01	0.99	0.12	2.25	0.08*	1.08	0.15	2.80	
	장애여부	0.11*	1.12	0.16	1.05	0.04**	1.04	0.18	1.12	
	건강상태	-0.87***	0.42	0.08	1.28	-0.85***	0.43	0.09	1.33	
경제특성	경제활동여부	-0.17***	0.84	0.21	1.09	-0.42***	0.66	0.16	1.28	
	연금수급여부	-0.29*	0.74	0.23	1.14	-0.38***	0.69	0.14	1.05	
	소득	-0.74***	0.48	0.31	1.30	-1.67***	0.19	0.84	2.72	
	순자산	-0.02	0.98	0.14	1.07	-0.01	0.99	0.00	1.12	
지역특성	수도권여부	0.30***	1.35	0.15	1.08	0.13**	1.13	0.16	1.05	
지출 특성	고정 지출	생계비	0.31	1.36	1.97	7.75	0.13**	1.13	4.38	8.13
		보건의료비	0.29**	1.34	1.99	5.98	0.34**	1.40	4.38	7.33
		주거비	0.38**	1.46	2.09	7.10	0.47***	1.60	4.45	7.06
	유동 지출	교육비	0.27	1.31	3.07	2.12	0.39	1.47	4.46	8.22
		교양오락비	-0.32*	0.73	3.66	1.67	0.33	1.39	5.07	2.70
		교통통신비	0.37	1.45	2.23	5.10	0.32	1.37	4.81	6.63
		기타지출	0.20	1.22	2.04	6.67	0.21	1.23	4.45	7.52

p&lt;0.1: \*, p&lt;0.05: \*\*, p&lt;0.01: \*\*\*

가 역승산비=1.35, 차가 역승산비=1.45 / 소득에 대한 자가 역승산비=2.08, 차가 역승산비=5.26), 이는 주택 소유를 하지 못한 저소득층 가구에서 경제적 취약성에 따른 정신건강 문제가 심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자가와 차가 모두 수도권에 거주할 경우 비수도권 거주보다 우울감을 가질 확률이 높았다. 주거비와 같은 생활비 부담에 있어 거주지역은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수도권의 경우 비수도권에 비해 높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점에서(권건우·진창하, 2016; 이경영·전희정, 2018) 수도권 거주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우울감을 가중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9) 계수 값의 부호가 음(-)의 값을 가질 때에는 승산비의 역수(역승산비)를 구함으로써 독립변수의 단위 변화에 대해 더 큰 값에 대한 더 작은 값의 승산 변화량을 파악할 수 있다(Long and Freese, 2006; 최경희·조덕호,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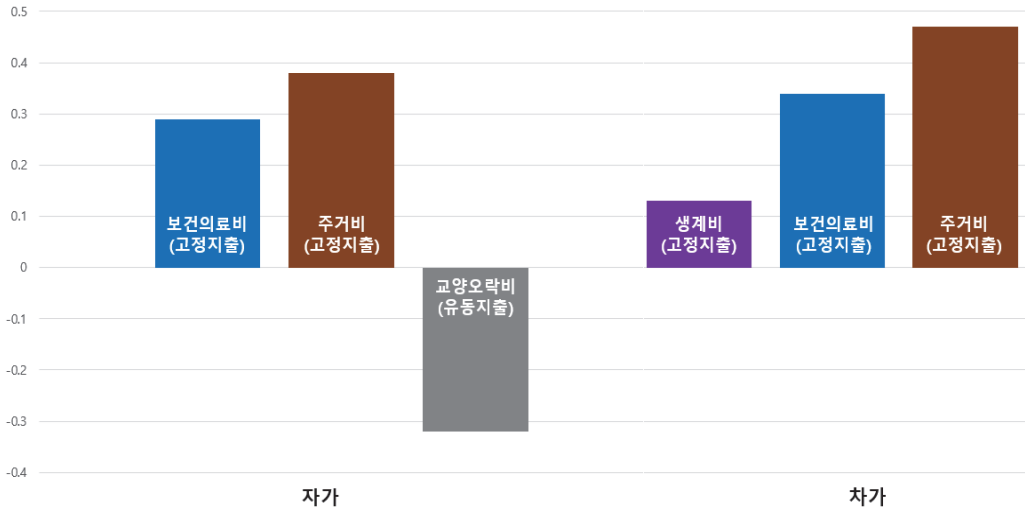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지출특성의 경우 고정지출인 세금 및 사회보장부담금(사회보장비)을 참조변수로 선택하였는데, 총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작고 반드시 내야 하는 조세 성격을 가진 동시에 복지적 성격의 필수지출이라는 점에서 비교의 준거로 활용하기 적절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자가는 보건의료비, 주거비, 교양오락비가, 차가는 생계비와 보건의료비, 주거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 참조). 구체적으로 자가와 차가 가구원의 우울감에 공통적으로 보건의료비와 주거비가 악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보건의료비는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고 피할 수 없는 고정지출적 특성으로 인해 재정적 타격을 받을 수 있어 저소득층의 삶의 유지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손수인 외, 2010; 정영일 외, 2013). 이처럼 지출의 예측이 어려우며, 단기간에 과도한 지출을 일으키거나 혹은 지속적인 지출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보건의료비는 저소득층 자가와 차가 모두의 우울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역시 고정지출 영역에 포함되는 주거비 또한 자가와 차가의 우울에 공통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출특성 중 가장 높은 승산비 값을 가져 저소득층의 우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차가 가구원에게 그 영향력은 더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경제사정에 따라 줄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특성을 가진 생활비에 대해 차가 거주자가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결과는 주거비 지원을 통해 자가 및 차가 모두 정신적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차가 가구의 안정적 삶의 유지를 위해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기존 연구 역시 주거비부담이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안정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박정민 외, 2015; 임세희, 2016; 강수진·서원석, 2019).

교양오락비의 경우 유일하게 저소득층 자가 가구원의 우울감을 감소시키는 생활비 특성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교양오락비에 포함되는 비용이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완화시킬 수 있는 문화·여가활동을 위한 비용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에 차가 가구원의 경우 자가 가구원과는 달리 교양오락비는 유의하지 않았고, 대신 높은 생계비가 우울감을 가중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저소득층은 지출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고정적·기초생활적 성격을 가진 생활비로 인해 우울이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차가의 경우 주거비와 생계

비처럼 인간의 본질적인 삶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질수록 우울감이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자가는 유동지출의 적절한 활용을 통해 더 나은 정신건강을 도모할 가능성이 있음을 파악하였다.



주: 참조는 사회보장비

〈그림 1〉 점유형태별 생활비 지출특성 요인 비교결과

## 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저소득층의 점유형태별 생활비 지출특성이 정신건강(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이항로짓모형을 이용해 확인하였으며, 실증분석 결과 및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소득층의 점유형태별 우울감을 살펴본 결과 차가의 우울은 자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둘째, 저소득층의 경제적 문제는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의 악화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차가 가구원의 우울에 경제활동이나 연금수급, 소득 등이 더 크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 취약성이 주택비소유 저소득층에 더 큰 정신적 어



려움을 줄 수 있음을 파악하였다.

셋째, 저소득층의 생활비 지출특성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점유형태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차가는 차가에 비해 고정지출영역(기초생활비영역)이 정신건강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특히 생계비처럼 인간의 본질적인 삶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질수록 차가의 우울감은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차가는 차가에 비해 비기초생활비 영역인 유동지출의 적절한 활용을 통해 더 나은 정신건강을 도모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섯째, 지출특성 중 주거비는 저소득층의 우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으며, 특히 차가일수록 그 영향력은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저소득층은 경제사정에 따라 줄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고정적·기초생활적 성격을 가진 생활비로 인해 우울이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차가의 경우 주거비와 생계비처럼 인간의 본질적인 삶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질수록 우울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생활안정이 그들의 안정적 삶의 유지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파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먼저 경제적 취약성에 따른 정신적 어려움이 주택비소유 저소득층에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에서 저소득층 차가의 일자리 창출 확대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생활비의 고정지출영역이 저소득층의 정신건강에 있어 중요한 결정요인이라는 점에서 고정지출과 연관된 기초생활영역을 중심으로 직접적인 급여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주거비가 저소득층의 우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임대료 보조정책의 확대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임대료 보조정책으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와 주택바우처제도가 있는데, 주거급여의 경우 2018년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소득인정액 기준을 중위소득 43% 이하 가구에서 45%(4인기준 213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하였다. 주택바우처제도(임대료 보조지원)의 경우 서울시만 운영하고 있으며, 주거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취약계층에게 주택바우처를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미보유 저소득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임대료 보조지원 정책의 확대시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생활 안정과 함께 우울감 감소를 통한 사회적 편익의 증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저소득층 차가는 고정지출 항목인 생계비가, 자가는 유동지출 항목인 교양오락비가 정신건강에 있어 결정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점유형태별로 특화된 지원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저소득층 차가에게는 식료품 및 가사용품 등 다양한 용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계급여 지원을 강화하고, 저소득층 자가에게는 문화·여가 등 특정한 용처에 사용할 수 있는 쿠폰형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저소득층의 자가 보유를 위한 지원정책도 중요한데, 이는 차가의 점유형태 전환을 통해 사회적 우울감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시스템에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이 운용되고 있으나, 여전히 저소득층이 이용하기에는 조건이 까다로운 실정이다. 따라서 저소득층이 자가 마련을 하는데 필요한 주택금융지원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제공된 자료에서 파악할 수 있는 정보의 부족 및 한계로 인해 저소득층의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령대별, 지역별, 미시적 주거형태별(월세, 공공임대주택 등)로 살펴보기 어려웠다. 또한 우울감은 정부 정책의 변화, 시대에 따라 차별적인 양상을 보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횡단면 자료를 사용해 이와 같은 양상을 고려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추후 연구에서는 종단적 연구와 더불어 추가적인 자료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보다 미시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1. 강상경·권태연, “사회경제적 지위가 우울수준에 미치는 영향의 생애주기별 차이에 대한 탐색적 고찰,”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제30권 제1호,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2008, pp.332-355.
2. 강수진·서원석, “주거특성이 거주자의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주택점유형태별 주거비부담을 중심으로,” 『주택도시연구』, 제9권 제1호, SH도시연구원, 2019, pp.13-29.
3. 권건우·진창하, “생애주기별 가구의 주거비부담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주택연구』, 제24권 제3호, 한국주택학회, 2016, pp.49-69.

4. 권연화·최열, “주거취약계층별 주거비부담 결정요인 비교분석: 부산지역을 대상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32권 제1호, 한국지역개발학회, 2020, pp.119-141.
5. 김병석, “1인가구의 주거특성이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도시행정학보』, 제32권 제1호, 한국도시행정학회, 2019, pp.69-80.
6. 김영숙·심미영, “도시 근로자가계의 주생활비 소비지출구조분석: 1982년부터 1992년까지,” 『대한가정학회지』, 제32권 제2호, 대한가정학회, 1994, pp.1-15.
7. 김영주·유병선, “저소득 가구 유형별 복지서비스를 통한 생활비 절감효과에 관한 사례조사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8권 제6호, 한국가정관리학회, 2010, pp.169-181.
8. 김준표·김순은, “독거노인의 사회자본과 삶의 만족: 우울과 공적연금 수급의 지역차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29권 제3호,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8, pp.267-284.
9. 김태완·오미애·박형준·이주미·신재동·정희선·이병재·박나영·이봉주·김태성·강상경·박정민·정원오·백승호·함선유·김화선·신유미, 『2017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10. 박경순·박영란·손덕순, “사회적 연결감과 우울의 관계: 도시노인과 농촌노인의 비교,”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20권 제2호, 한국콘텐츠학회, 2020, pp.667-677.
11. 박경준·이성우, “다층모형을 활용한 수도권 거주자의 주거비 결정요인 분석,” 『국토연구』, 제87권, 국토연구원, 2015, pp.33-48.
12. 박근덕·이수기·이은영·최보울, “개인 및 가구특성과 물리적 환경이 거주민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경기도 지역사회건강조사 2013-2014 자료를 중심으로,” 『국토계획』, 제52권 제3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7, pp.93-108.
13. 박상규·이병하, “빈곤층의 심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16권 제4호, 한국심리학회, 2004, pp.813-824.
14. 박서영·홍송이, “은퇴 베이비부머의 소비패턴과 우울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제37권 제2호, 한국노년학회, 2017, pp.349-368.
15. 박서영·홍송이, “경제활동참여 베이비부머의 소비유형과 우울의 관계,”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6권 제1호,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18, pp.439-452.
16. 박정민·허용창·오욱찬·윤수경, “주거빈곤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종단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67권 제2호, 한국사회복지학회, 2015, pp.137-159.
17. 성준모, “소득수준별 가구 경제요인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단적 고찰,” 『한국

- 사회복지학』, 제62권 제1호, 한국사회복지학회, 2010, pp.109-132.
18. 성준모,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및 가구 경제 요인: 고정효과 모형을 적용한 패널 회귀 분석,” 『사회과학연구』, 제24권 제2호,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3, pp.207-228.
  19. 손수인·신영전·김창엽, “저소득층의 과부담의료비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보건사회연구』, 제30권 제1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pp.92-110.
  20. 엄태완, “빈곤층의 경제적 스트레스와 우울 관계에서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의 효과,”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제28권,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2008, pp.36-66.
  21. 연합뉴스, “복지 사각지대 비극…생활고 겪은 일용직 고독사(보도자료)”, 2019.12.22.
  22. 우혜경·조영태, “빈곤의 동태와 자살생각,” 『보건과 사회과학』, 제34권 제1호, 한국보건사회학회, 2013, pp.5-35.
  23. 윤우석, “지역사회해체 인지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검증: 무질서, 사회유대, 비공식적 사회통제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 제13권 제1호, 한국경찰연구학회, 2014, pp.117-146.
  24. 이경영·전희정, “점유형태별 주거비부담능력의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수도권 및 비수도권의 지역 간 비교를 중심으로,” 『국토계획』, 제53권 제4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8, pp.143-161.
  25. 이상문, “빈곤계층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3년간의 패널연구 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42권 제3호, 한국사회학회, 2008, pp.119-152.
  26. 이현정·김대규·정창민, “자가가구와 차가가구의 사회경제적 차이 및 주거비 지출 영향요인,” 『한국주거학회논문집』, 제29권 제1호, 한국주거학회, 2018, pp.59-70.
  27. 이현주·강신옥·김현경·이병희·주상영·전지현, 『저소득층 가구소비 변화와 사회정책적 함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28. 이희연·노승철, 『고급통계분석론: 이론과 실습』, 문우사, 2013.
  29. 임세희, “주거비 과부담 결정요인,” 『한국사회복지학』, 제63권 제3호, 한국사회복지학회, 2016, pp.29-50.
  30. 장신재, “노인의 생활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비동거 자녀로부터 경제적 지원의 조절 효과,” 『한국융합학회논문지』, 제8권 제4호, 한국융합학회, 2017, pp.239-245.
  31. 전겸구·이민규, “한국판 CES-D 개발 연구 1,”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제11권 제1호, 한국심리학회, 1992, pp.65-76.
  32. 정영일·이혜재·이태진·김홍수, “가구 과부담의료비 측정에 관한 연구 고찰 및 시사

- 접,”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제19권 제4호,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2013, pp.1-27.
33. 조맹제 · 하양숙 · 한경자 · 박성애 · 송미순 · 김용익 · 홍진표, “일 농촌지역의 우울 증상에 관한 역학 연구-위험요인 및 요인구조 분석,” 『신경정신의학』, 제38권 제2호, 대한신경정신의학회, 1999, pp.266-277.
34. 조성진 · 전홍진 · 김무진 · 김장규 · 김선옥 · 류인균 · 조맹제, “한국 일 도시지역 청소년의 우울 증상 유병률과 관련 요인에 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제40권 제4호, 대한신경정신의학회, 2001, pp.627-639.
35. 최경희 · 조덕호, “도 · 농노인의 삶의 만족도 분석을 통한 지역별 노인복지정책 우선순위 결정,” 『도시행정학보』, 제26권 제3호, 한국도시행정학회, 2013, pp.49-70.
36. 최열 · 임하경 · 장원호, “도시재생에 따른 주거재정착 결정요인 분석,” 『대한토목학회논문집』, 제29권 제3D호, 대한토목학회, 2009, pp.409-418.
37. 파이낸셜뉴스, “생활고에 잇따른 비극.. 가난 증명 없어져야(보도자료)”, 2019.12.16.
38. 한겨레, “‘성북 네 모녀’ 빛 압박에 생활고…채무조정 · 복지 연계 안전망 절실(보도자료)”, 2019.11.12.
39. Eaton, W.W., C. Muntaner, G. Bovasso and C. Smith, “Socioeconomic status and depressive syndrome: the role of inter- and intra-generational mobility, government assistance, and work environment,”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Vol. 42 No. 3, 2001, pp.277-294.
40. Long, J.S. and J. Freese, Regression models for categorical dependent variables using Stata, *Stata press*, 2006.
41. Lusardi, A., “Financial literacy and financial decision-making in older adults,” *Generations*, Vol. 36 No. 2, 2012, pp.25-32.
42. Meyer, B.D. and J.X. Sullivan, “Consumption and income poverty over the business cycle,” *Research in Labor Economics*, Vol. 32, 2011, pp.51-82.
43. Rogerson, P.A., “The GINI coefficient of inequality: A new interpretation,” *Letters in Spatial and Resource Sciences*, Vol. 6 No. 3, 2013, pp.109-120.
44. Seedat, S., K.M. Scott, M.C Angermeyer, P. Berglund, E.J. Bromet, T.S. Brugha and E.G. Karam, “Cross-national associations between gender and mental disorders in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orld Mental Health Survey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Vol. 66, 2009, pp.785-795.

45. Taylor, D.J., K.L. Lichstein, H.H. Durrence, B.W. Reidel and A.J. Bush, "Epidemiology of insomnia, depression, and anxiety," *Sleep*, Vol. 28 No. 11, 2005, pp.1457-1464.
46. Turner, R.J., B. Wheaton and D.A. Lloyd, "The epidemiology of social stres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60 No. 1, 1995, pp.104-125.

- 
- 접수일 2020. 07. 07.
  - 심사일 2020. 07. 11.
  - 심사완료일 2020. 09. 16.

## 국문요약

### 저소득층의 점유형태별 생활비 지출특성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저소득층의 점유형태에 따른 생활비 지출특성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이항로지모형을 이용해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저소득층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고찰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저소득층 차가 가구원의 우울은 자가 가구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둘째, 저소득층의 경제적 문제는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의 악화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셋째, 저소득층의 생활비 지출특성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점유형태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고정지출은 특히 차가의 우울감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지출특성 중 주거비는 저소득층의 우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으며, 차가일수록 그 영향력은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저소득층은 경제사정에 따라 줄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고정적·기초생활적 성격을 가진 생활비로 인해 우울이 심화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차가의 경우 주거비와 생계비처럼 삶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질수록 우울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생활안정이 그들의 안정적 삶의 유지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파악하였다.